

이택선,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김 영 수 (영남대학교)

본고는 해방 직후 고하 송진우의 건국 구상과 행동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해방 후 체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고하의 노선과 행동은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 중용적이고 진보적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했다고 본다.

이 글은 특히 고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친일파, (2) 극우, (3) 분단책임. 이런 인식의 오류의 근거는 (1) 1945년 창당 당시 한 국민민주당의 80%는 민족주의자, 14%는 사회주의자였고, 친일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1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하는 일제 치하에서 3번 구속되어 27개월의 옥고를 치렀고, 일제 말기에도 협조를 거부하고 지조를 지켰다.

(2) 고하가 중심이었던 동아일보에서 다수의 사회주의자가 활동했고, 한민당도 초기에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민족 대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고하가 건준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좌우가 합작한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의한 주권 이양 거부, 임정봉대, 미군정 인정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고하가 건준과 함께 하기는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건준은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배되었고,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와 협력해 통일정부를 이룬 예가 없었다.

이와 같은 박명림, 윤덕영, 김형석 등의 연구에 의해 대략 검토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특징은 특히 고하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를 탁월한 ‘정치적 가교’(political bridge)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첫째, 고하의 정치이념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일종의 복지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 운영 원리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철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송진우의 ‘자유권과 생존권’ 주장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구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1945년 한국민주당 창당대회의 강령 3. 근로 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과 정책 1.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와 4.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5. 중공업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6. 중요산업의 국영 또는 관제 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편성이 그것이다.

고하의 이같은 정치이념은 1945년 해방 후 최대의 정치적 문제였던 농지개혁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한민당이 농지개혁을 받아들인 것도 고하의 정치이념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송진우 사후 한국민주당을 맡은 김성수를 비롯

한 인사들이 비록 지주 출신이지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이택선, p. 36)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6.25전쟁 때 농민층은 공산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했다.

둘째, 고하는 반공주의자였지만, 1927년 신간회 운동에 참여했다. 신간회는 독립운동의 양대 세력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해 결성했다. 1927-1931년까지 존속한 신간회는 전국 120~150여 개의 지회, 2-4만 명에 이르는 일제하 가장 규모가 큰 반일 좌우합작 단체였다. 그런데 1927년 신간회 경성지회 조직의 주도권을 쥔 공산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송진우와 동아일보 계열 인사를 타협적 민족주의자, 대자본가로 비난하고, 송진우를 가입 즉시 제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셋째, 1945년 고하는 여운형의 건준에 반대했지만, 임정봉대 이후 여운형을 적극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준에 반대한 이유가 개인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여운형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넷째, 한국민주당은 극우파와 친일파의 결집이 아니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생계형 친일 인사까지 포괄하는 민족대연합 성격을 지녔다.

그는 그의 사후에 한국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당내 보수파와 비주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였다. 이에 고하 송진우가 이끌었던 초기 한국민주당에는 친일 지주 세력만이 아니라 송진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등의 여러 세력이 참여했으며 대표적 인물로 김병로와 김약수, 원세훈, 서상일, 전진한 등을 들 수 있다.(이택선, p. 7)

다섯째, 임정봉대를 주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승만과 김구의 분열은 민족주의와 자유민주 진영의 단결을 해쳤다. 양자는 민족과 체제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놓고 결정적으로 분열되었다. 김구는 민족의 관점에서 좌우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택이 우선이며, 민족의 대의 아래 체제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46년 정읍발언은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 김구는 이승만의 이런 입장을 반민족적이고 분단을 고착시킨다고 비판했다.

여섯째, 미군정을 인정하고, 민족진영, 자유민주진영과 미군정의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렇게 고하는 해방정국에서 심각한 분열요소를 지닌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45년 말 그가 암살되자 정치세력간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남북분단은 물론 남한 내 정치세력도 극단적 분열을 겪었다. 먼저 한민당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탈당했다. 또한 임정세력과 한민당,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과 한민당이 차례로 대립하였다.

고하 사후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주당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는 민족진영의 분열로도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고하 사후 1946년 좌우합작운동을 계기로 한국민주당에서 탈당한 일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중동맹’ 등 해방 정국의 중간파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이택선, vp. 11)

임정세력은 미군정과 대립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서 배제되었다. 잇단 김구의 암살은 한국 민족주의에 큰 상처와 분노를 남겼다. 그리고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립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와 국회 역시 극단적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

고하의 죽음 앞에서 어린애처럼 펄펄 울었던 이승만의 모습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한다. ... 이승만의 눈물은 이제 고하가 없으니 더 이상 중간파나 좌파를 통합시킬 구심점이 없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나온 한탄이었을 것이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사이의 연대 역시 고하가 생존했을 때만큼 공고하지 못했다. 고하의 죽음 이후 마포장으로 쫓겨나게 된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한국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진 이승만은 초대 내각에서 한국민주당 당원들을 외면했다.(이택선, p. 11)

이런 점에서, 고하는 뛰어난 정치가였다.

낭산 김준연이 동아일보 1947년 12월 29일지에 게재한 “고하 송진우 선생 2주기를 맞이하여”에 따르면 고하의 유일한 취미가 정치였다. 그는 자나 깨나 정치를 생각하고 앉으나 누우나 조선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이택선, p. 2)

정치가로서 고하의 뛰어난 자질은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있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정치는 ‘다름의 인정(Recognition of difference)’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고하는 정치의 본질을 체화한 정치가였다. 정치 종사자는 많지만 그런 정치가는 드물다.

이런 정치적 자질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적 분열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1945년 해방정국에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암살되지 않고 정치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 한국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의 죽음은 민족사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하같은 정치가는 12.3계엄 이후 오늘날의 한국정치에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다.